

LG필립스LCD, 경영실적 개선 지연

푸르덴셜, 반제품 재고 높고 원가부담 ... 7.5세대 생산성 향상은 가능

푸르덴셜투자증권은 10월25일 LG필립스LCD의 목표주가를 4만7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현 애널리스트는 “반제품 재고가 여전히 높아 원가 부담이 2007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일본 Sharp가 46인치 패널을 주력 제품으로 확정함에 따라 47인치 시장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 애널리스트는 “또 부품조달상 고비용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적개선 속도를 늦추는 부정적 요인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수익 추정치를 낮추고 목표가도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적 회복 속도가 느려졌지만 2/4분기를 저점으로 한 경영실적 개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박현 애널리스트는 “또 4/4분기 이후에는 대폭적인 단가 인하 가능성이 낮고, TV패널을 중심으로 출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7.5세대 설비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긍정적 시각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25>